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에베소교회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에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 받은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17절)

성도들 모두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와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할 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믿음이 더해집니다.

둘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18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에 보내시면서 가지신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소망을 의미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소망과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 소망, 내 소원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진 소망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19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소망, 교회를 향해 가진 소망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2(월)	1/23(화)	1/24(수)	1/25(목)	1/26(금)	1/27(토)	1/28(주일)
창 43-44	창 45-47	창 48-50	출 1-3	출 4-6	출 7-9	출 10-12

QT

이번 주 QT 말씀

1/22(월)	1/23(화)	1/24(수)	1/25(목)	1/26(금)	1/27(토)	1/28(주일)
막 8:14-26	막 8:27-9:1	막 9:2-13	막 9:14-29	막 9:30-37	막 9:38-50	막 10:1-16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바울의 기도를 비교해 보고, 올 한해 어떤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할지 나누어 주세요.